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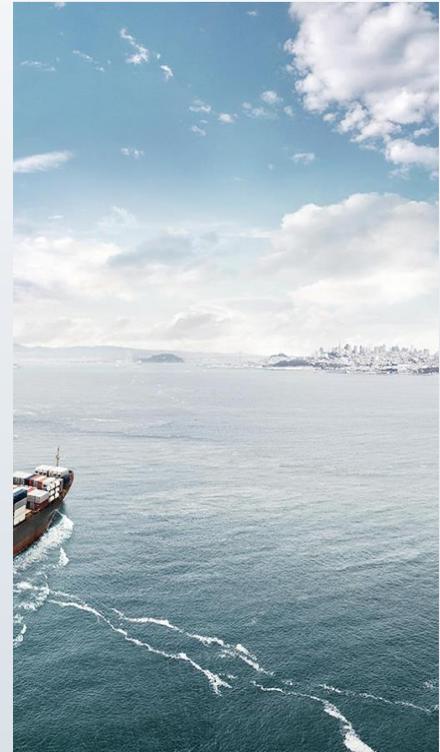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201

Updated May 29, 2018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Market Overview	1
Issue & Trend	4
Bulk Carrier	9
- BC Sales Report	
Tankers	13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7
Key Indicators	20
Useful Information	23
Contact Information	23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MARKET OVERVIEW

1. 신조선 시장동향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셔틀탱커 4 척 신조계약을 체결하였던 싱가포르 선사 AET 로부터 추가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 AET 는 최근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PETRONAS)와 수에즈막스급 셔틀탱커 4 척에 대한 장기용선 계약을 체결했고, 이들 선박을 한국 조선사에 발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 AET 는 앞서 발주한 선박들에 대한 옵션계약 행사를 추진 중이며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셔틀탱커 2 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큰 무리가 없는 한 삼성중공업이 추가수주를 따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호주 'BAROSSA' 가스전 FPSO 프로젝트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CONOCOPHILLIPS 와 호주 BAROSSA 프로젝트 기본설계(FEED)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FEED 는 본격적인 EPC 계약 전에 진행되는 기본설계 계약으로, FEED 작업은 프로젝트의 기술 관련 세부사항들, 투자비용 규모, LNG 매매계약 등을 확정하기 위한 엔지니어링·상업 관련 작업을 수반한다. FEED 계약이 단독이 아닌 공동 계약이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앞선 경쟁력으로 BAROSSA FPSO 물량을 따내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에 TECHNIPFMC 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FEED 수주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BAROSSA 가스전 개발에는 부유식 생산·저장 및 하역 설비(FPSO), SUBSEA 생산 지원 인프라, 가스 수출 파이프라인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2. 벌크선 시장동향

벌크선 시장은 여전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포시도니아를 앞두고 그리스 바이어들은 잠시 숨고르기 중인 듯 선박 매입이 줄어든 모습이다.

케이프 사이즈 "NEW MIGHTY" (179,850 DWT, BLT 2011 HHIC-PHILIPPINES)가 한국바이어에게 2,750 만 달러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령 1 년 많은 "SHOURONG HARMONY" (180,323 DWT, BLT 2010 DALIAN)는 지난 달 2,500 만 달러에 매각되었다.

지난주는 핸디사이즈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였다. 가장 모던타입인 "IYO SEA" (37,537 DWT, BUILT 2015 IMABARI)은 PACIFIC BASIN 에 2050 만 달러에 매각되었다. "LOWLANDS SAGUENAY" & "LOWLANDS BOREAS" (37,144 DWT, BUILT 2013 YANGFAN) 은 척당 1,400 만 달러에 싱가포르의 BERGE BULK 에 매각되었다. "OCEAN LUCK" (35,360 DWT, BUILT 1998 KANASASHI)이 마침내 중동 바이어에게 520 만 달러에 매각되었다.

I . MARKET OVERVIEW

좀 더 작은 핸디사이즈 "PERSEVERANCE" (30,060 DWT, BUILT 2013 TSUJI)과 "GLORIOUS SENTOSA" (28,346 DWT, BUILT 2010 IMABARI)는 각 1,000 만 달러에 홍콩의 TAYLOR MARITIME 에 매각되었다. 참고로 선령이 1 년 많은 자매선 "GLORIOUS SAWARA" (28,346 DWT, BUILT 2009 IMABARI)은 지난 4 월 900 만 달러에 매각되었다. "CLIPPER LASCO" (28,200 DWT BUILT 2004 IMABARI)가 베트남 바이어에게 675 만 달러에 매각되었다. 선령 1 년 적은 자매선 "SEA HARMONY" (28,200 DWT BUILT 2005 IMABARI)는 지난 2 월 620 만 달러에 매각되었다.

3. 탱커선 시장동향

미국 SCORPIO TANKERS 가 제품운반선 5 척을 매각한 뒤 장기 용선하는 SALE & LEASE BACK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SCORPIO TANKERS 는 중국 선박리스업체인 어빅 인터내셔널 리싱(AVIC INTERNATIONAL LEASING)에 115,000DWT 급 LR2 탱커선 2 척과 MR 탱커선 3 척을 매각 후 재용선 해 8 년간 운영한다. 계약조건에 따라 2 년 마다 매각 선박을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CORPIO TANKERS 가 매각한 선박은 2013 년~2015 년 건조된 선령 10 년도 안된 모던타입이다.

"STI RAMBLA" (109,999 DWT, BUILT 2017 SUNGDONG)

"STI ROSE" (109,999 DWT, BUILT 2015 DAEHAN),

"STI BROOKLYN" (49,990 DWT, BUILT 2015 SPP),

"STI VILLE" (49,990 DWT, BUILT 2013 HYUNDAI MIPO),

"STI FONTVIEILLE" (49,990 DWT, BUILT 2013 HYUNDAI MIPO)

SCORPIO TANKERS 의 선단 매각소식 외에도 MR 탱커선 부문에 거래가 주를 이루었다.

PUMP-ROOM 타입의 MR 탱커선 "NORD INTELLIGENCE" (47,975 DWT, BUILT 2010 IWAGI ZOSEN)이 그리스의 SPRING MARINE 에게 1,650 만 달러에 매각되었고, DEEP-WELL PUMP 타입의 "ARCTIC BRIDGE" (50,921 DWT, BUILT 2005 STX - ICE 1A)이 유럽선주에게 1,200 만 달러에 매각되었다.

빈티지선박 "OCEAN EMERALD" (2000 ONOMICHI) 과 "OCEAN CORAL" (2000 SHIN KURUSHIMA)이 매각되었으나 자세한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I . MARKET OVERVIEW

4. 해체선 시장동향

라마단 기간이 시작되었지만 예상보다는 해체선 시장의 움직임이 활발한 모습이다.

이번 주 가장 고가의 거래는 LPG 탱커선 "ARZEW GAS" (9,539 DWT, 5,891 LDT, BUILT 1976)로 인도 딜리버리 조건으로 LDT 당 USD 467.5 에 매각되었다.

벌크선 부문에서 케이프사이즈 "KIRAN" (175,048 DWT, 24,285 LDT, BUILT 1994)이 파키스탄 인도 조건으로 LDT 당 USD 440 에 매각 되었다. 셀프 언로더(SELF-UNLOADER) 선박인 "SMT BONTRUP" (42,980 DWT, 15,109 LDT, BUILT 1979)은 그린리사이클링(GREEN RECYCLING) 조건으로 LDT 당 USD 434 를 받았다.

다음 몇주간은 라마단 기간과 포시도니아 시기가 맞물리며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II . ISSUE & TREND

1. 조선사 CEO, 그리스 집결...세계최대 선박 박람회서 수주전 예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그리스에서 진행되는 세계 최대 조선박람회에 참석한다. 이들은 일감부족 사태를 타개하고자 이번 박람회에서 선박 수주에 사활을 걸 예정이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과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은 다음달 4일부터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포시도니아 박람회에 참석해 수주 경쟁을 펼친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국내 조선사와 함께 한국관을 마련, 선주들의 눈길을 잡을 전망이다.

2년마다 열리는 포시도니아박람회는 노르웨이 노르시핑, 독일 함부르크 해양 기자재 박람회와 더불어 3대 조선해양 박람회로 꼽힌다. 실제로 이 박람회 기간 조선업체와 선주 간의 선박 발주 관련 계약들이 자주 체결되면서 조선사들에 있어 박람회는 수주 활동에 중요한 기회다. 이번 박람회에는 세계 조선해양업체 1천 850곳, 2만여명이 참석한다. 글로벌 해운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리스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그룹 등이 참여한다. 게다가 이번 행사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규제 조치 시행 이전의 마지막 박람회다 보니 더욱 주목받고 있다. IMO는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3% 이하로 낮추기로 하면서 벌써부터 관련 문의가 이어지는 추세다.

국내 조선업계는 이번 박람회에서 액화천연가스(LNG)선과 관련 기술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조선 3사 경영진들 모두 박람회 전후로 글로벌 선주들과 스킨십 강화를 위해 미팅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부유식 LNG 저장·재기화설비(LNG-FSRU) 모델을 전시한다. 아울러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도 박람회를 찾아 물밑지원에 나선다. 특히 정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부사장 승진 이후 첫 국제무대에 등장하는 것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쇠빙(얼음을 깨뜨려 부수는 기능) LNG 선에 대한 전시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 포시도니아 박람회를 통해 총 5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수주를 이끌어낸 바 있어 이번에도 경영진이 총출동해 선주들의 시선잡기에 나선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LNG 추진엔진을 탑재한 친환경 컨테이너선 모형을 전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삼성 공기유통시스템(SAVER AIR) 등 삼성중공업의 친환경 기술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공기유통시스템은 연비를 향상시켜주는 에너지 절감장치의 하나다.

II . ISSUE & TREND

결국 일감부족에 시달리는 국내 조선사들이 이번 박람회 계기로 신규 수주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 내달부터 파나마 운하 선박기준 완화, 조선업 수주 '숨통'

다음달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 선박 크기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어서 국내 조선사들의 컨테이너·LNG(액화천연가스)선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주들이 파나마 운하 통과기준 완화에 따른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투자 결정을 미루면서 올해 2분기 글로벌 LNG·컨테이너선 발주 물량이 전무했으나 하반기에는 발주가 강세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1일부터 파나마 운하 통과 허용 폭 기준은 49M에서 51.25M로 확대된다. 단기적으로 규정 완화 전후의 운임을 관측한 이후 투자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 4월부터 이어진 컨테이너·LNG선 신규 발주물량 저조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6월 규제 완화 이후 운임에 대한 대규모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LNG선과 컨테이너선의 유의미한 수준의 공급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규제 완화로 운하 통과 기준이 기존 1만 4500TEU 급에서 1만 5000TEU 급으로 상향된다. 총 54척, 선복량대비 8%의 선박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가스선의 경우 LPG(액화석유가스)선은 이미 모든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할 수 있어 추가 수혜가 없지만 LNG선은 총 38척, 선복량의 12%가 추가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미국발 이란 제재 부활' 해운업계 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5년 이란과 체결한 핵협정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서 철수하겠다고 지난 8일 발표함에 따라 해운·항만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제재 시행 언급으로 긴장이 고조된 분위기다.

영국 로이즈리스트에 따르면 머스크라인과 MSC가 미국의 JCPOA 철회 결정에 대비해 이란으로의 운항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라인은 미국 재무부가 명시한 특정 화물(흑연, 원료 및 알루미늄, 철강, 석탄 등의 반완전 금속, 산업용 통합 소프트웨어 등)의 수송을 금지한 데 이어 6월부터는 전체 운항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머스크는 제벨알리항에서 반다르아바스와 부셰르항까지의 제3자 선박

II . ISSUE & TREND

구매협약(슬롯구매협약)을 철수해 이란 운항을 중단하고 테헤란과 반다르아바스, 부세르에 있는 지사도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MSC의 경우 "현재 이란을 오가는 선박 운항 서비스 여부를 검토 중이며 미국이 명시한 제재 품목은 거래를 중단할 것" 이라고 밝혔다. 16일 공식 웹사이트 상에 "더 이상 이란 운항 예약을 받지 않겠다" 는 공지가 게재됐다.

이란 내 선사 및 항만업계에도 제재로 인한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국영 유조선사인 NITC와 국적선사 이리슬(IRISL)을 포함한 해운·항만 관련 기업들이 미국이 제시한 유예기간이 끝나는 11월 4일부터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란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도 피해를 경계하고 있다. 푸조·시트로엥, 르노, 다임러, 에어버스, 토털, 셸 등 유럽계 글로벌 기업들은 JCPOA가 가동된 2015년부터 항만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자국의 대 이란 수출 성장 기류에 대응해왔다.

이란 항만국(PMO)은 지난해 12월 민간 기업들과 총 24억달러에 이르는 13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각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샤히드라자이항·이맘호헤이니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사업(약 240만달러 규모)과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중심항만인 차바하르항 개발사업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JCPOA는 2015년 7월 이란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국, 독일이 체결한 공동 협정이다. 이란이 2025년까지 고농축 우라늄과 무기에 해당되는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농축 우라늄, 원심분리기 수를 제한하되 미국은 2006년부터 시행했던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90일에서 180일에 이르는 유예기간 이후 이란 및 이란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경제 제재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은 해당 협정을 계속 지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 유가 80 달러 눈 앞... 희비 엇갈리는 산업계

배럴당 80달러 수준까지 오른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해 몇 년 사이에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부터 하반기에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는 유가 등락에 따른 손익계산기를 두드리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I . ISSUE & TREND

25 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24 일(현지시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격은 배럴당 70.71 달러, 브렌트유(BRENT)는 배럴당 78.79 달러를 기록했다. 전일인 23 일에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79.80 달러까지 올라 2014 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0 달러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규모 축소 전망과 북미정상회담 취소 등으로 다소 유가가 하락했지만 국제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유가 전망에 대해서는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국제 운항 선박의 황산화물 오염 배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수급 불균형 영향으로 2020 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90 달러선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역시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주요 산유국의 생산이 위축되면서 브렌트유 가격이 100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정유사인 프랑스 토탈(TOTAL)사의 파트리크 푸야네 최고경영자(CEO)도 몇달 내 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를 넘더라도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가가 수개월 내 안정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 월 OPEC 의 감산이행률은 166%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 감산량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NH 투자증권의 황병진 연구원은 "OECD 원유재고가 5 년 평균치에 근접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글로벌 석유시장 수급 재균형 달성이 예상된다"며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출구전략도 조기에 논의될 수 있어 하반기 유가는 상·하방 경직성이 모두 강화될 것으로 예상해 점진적인 안정화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한금융투자의 윤창용 연구원은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WTI 는 연중 55~75 달러 등락을 예상한다"며 "WTI 가격이 70 달러 부근에서 미국 산업생산 확대 흐름이 목도됐고, 유가 60~80 달러 사이에서 미국 비농가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양적 성장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해당 수준의 유가는 연준 목표치 근처의 적절한 물가 상승과 구매력 강화로 이어져 소비 환경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유가 급등이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는 접어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가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업계 분위기도 사뭇 다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화학업체들의 수익성은 축소되고 있다. 지난 1 분기 LG 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등 주요 다운스트림 화학사들은 일제히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축소됐다.

II . ISSUE & TREND

대신증권의 박준영 연구원은 "국제유가 상승이 화학 제품 가격 상승보다 원가 부담과 그에 따른 마진 축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최근 유가 상승원인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주요 기반을 두고 있는데다 2분기 실물지표를 통해 전세계 경기둔화 시그널이 감지돼 유가상승에 따른 제품가격 전가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학 다운스트림뿐만 아니라 운송, 유틸리티와 철강, 건설 업체들도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변동의 영향권에 있다"며 "분기 평균 67 달러선에 머문 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높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유가 상승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가스공사는 저유가 영향으로 대규모 손상차손으로 실적이 악화돼 왔지만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만년 적자였던 호주 GLNG 수익성 개선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유가 등락 여부에 따라 각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지만 현재 유가로 인한 화학업계 실적 악화는 단기적 요인일 것"이라며 "현재 유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원가 반영이 가능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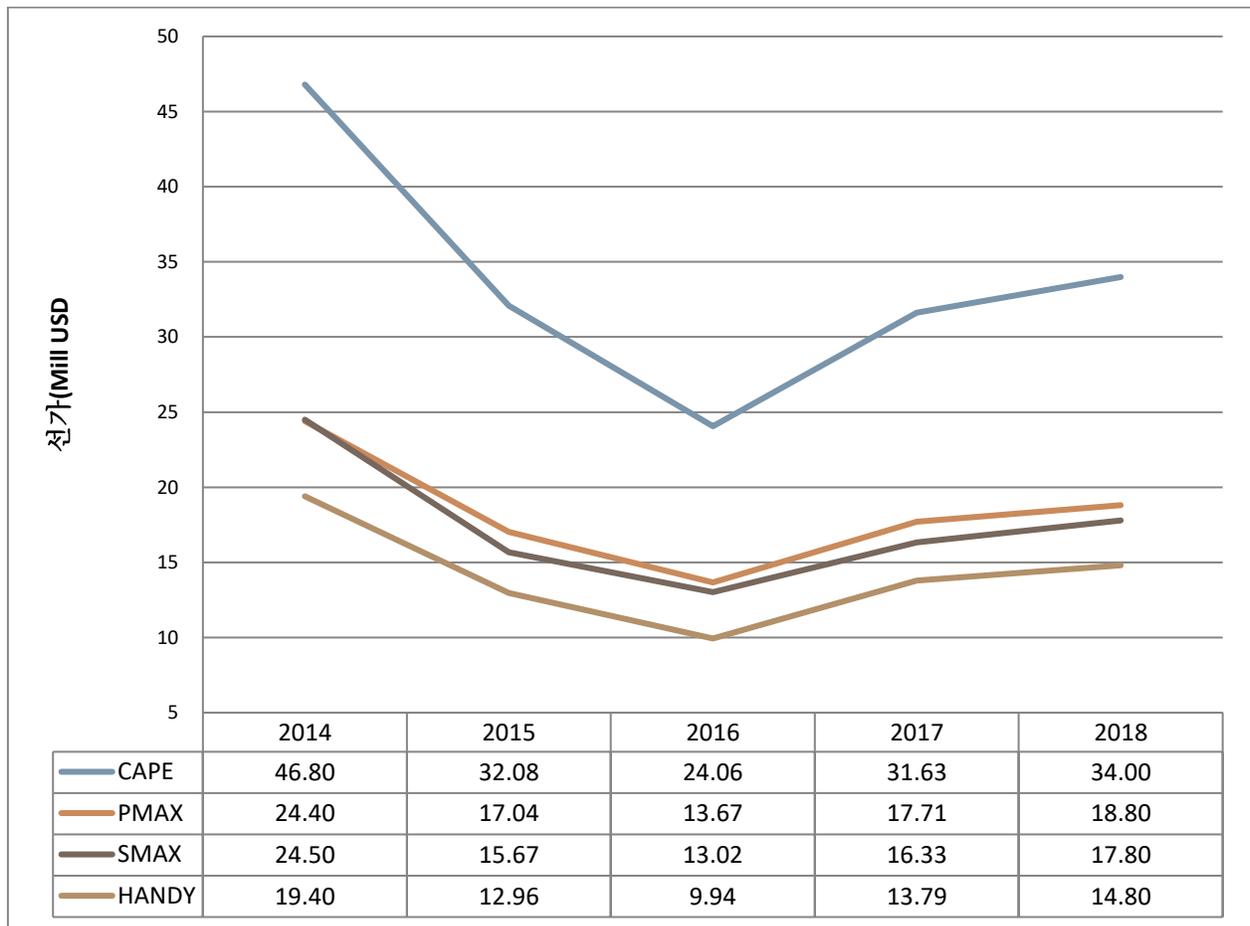
III.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4	2015	2016	2017	2018
Capesize 180K	46.80	32.08	24.06	31.63	34.00
	28.81%	-31.45%	-24.99%	31.43%	7.51%
Panamax 76K	24.40	17.04	13.67	17.71	18.80
	13.27%	-30.16%	-19.80%	29.57%	6.16%
Supramax 56K	24.50	15.67	13.02	16.33	17.80
	14.84%	-36.04%	-16.91%	25.44%	8.98%
Handysize 32K	19.40	12.96	9.94	13.79	14.80
	9.04%	-33.20%	-23.32%	38.78%	7.31%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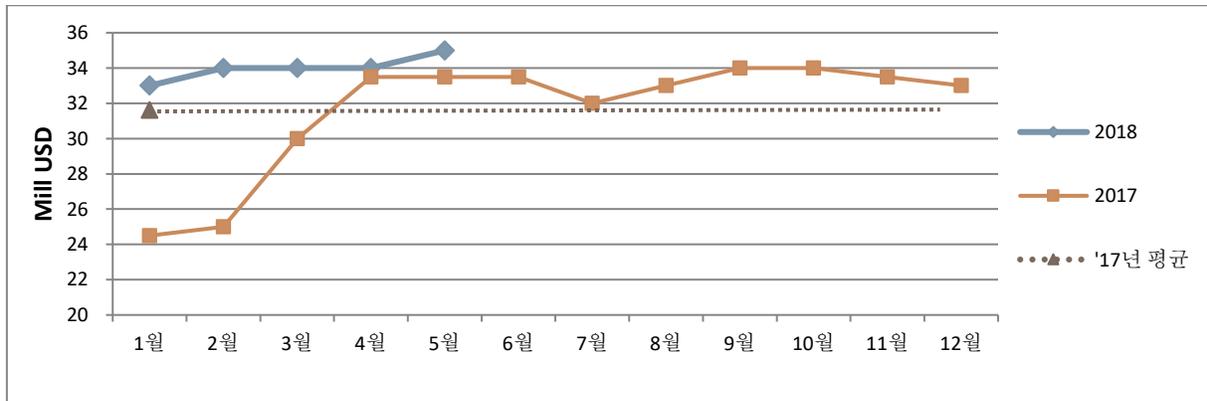




III.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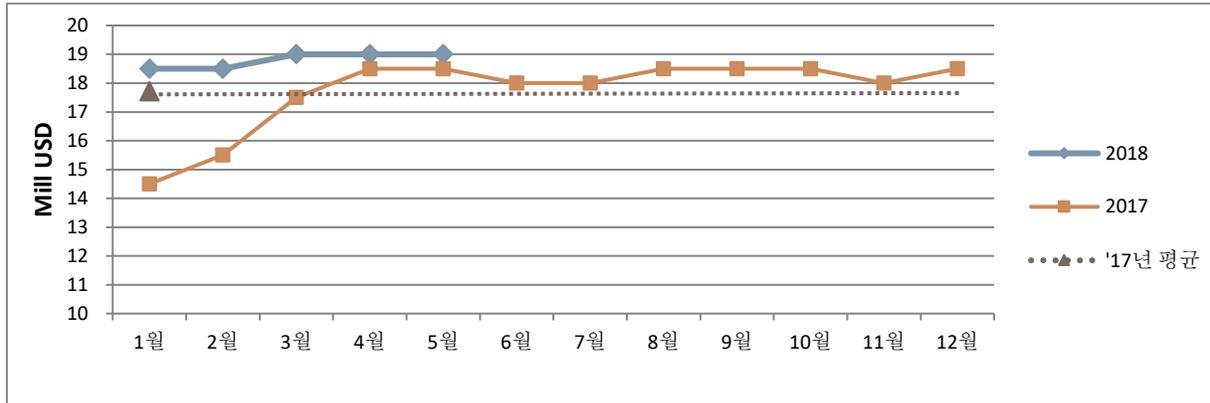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18	CAPE 180K	선가	33.00	34.00	34.00	34.00	35.00		34.00
		전월대비	0.0%	3.0%	0.0%	0.0%	2.9%		-
		전년대비	34.7%	36.0%	13.3%	1.5%	4.5%		7.5%
	PMAX 76k	선가	18.50	18.50	19.00	19.00	19.00		18.80
		전월대비	0.0%	0.0%	2.7%	0.0%	0.0%		-
		전년대비	27.6%	19.4%	8.6%	2.7%	2.7%		6.2%
	SMAX 56k	선가	17.50	17.50	18.00	18.00	18.00		17.80
		전월대비	0.0%	0.0%	2.9%	0.0%	0.0%		-
		전년대비	20.7%	16.7%	12.5%	5.9%	5.9%		9.0%
	HANDY 32k	선가	14.00	14.00	15.00	15.50	15.50		14.80
		전월대비	0.0%	0.0%	7.1%	3.3%	0.0%		-
		전년대비	7.7%	3.7%	11.1%	10.7%	10.7%		7.3%
2017	CAPE	24.50	25.00	30.00	33.50	33.50	33.50	31.63	
	PMAX	14.50	15.50	17.50	18.50	18.50	18.00	17.71	
	SMAX	14.50	15.00	16.00	17.00	17.00	16.50	16.33	
	HANDY	13.00	13.50	13.50	14.00	14.00	14.00	13.79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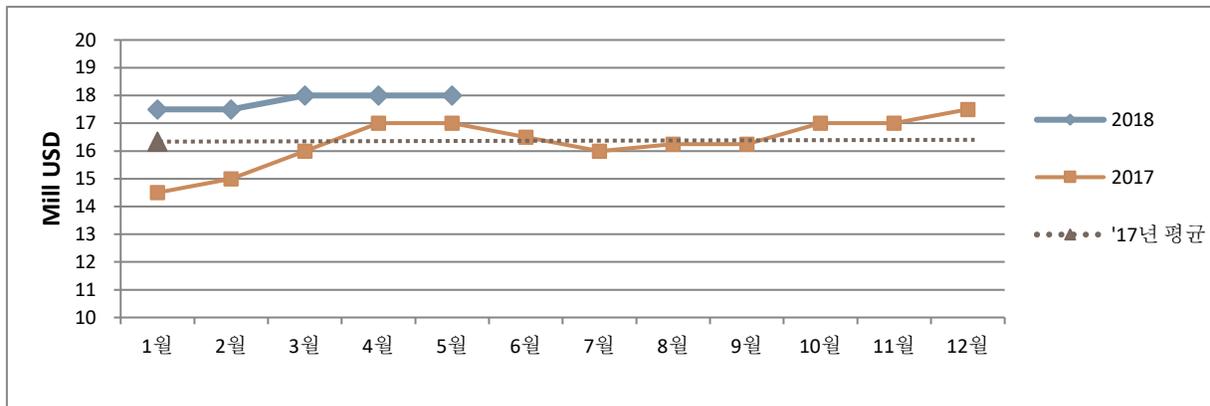


III.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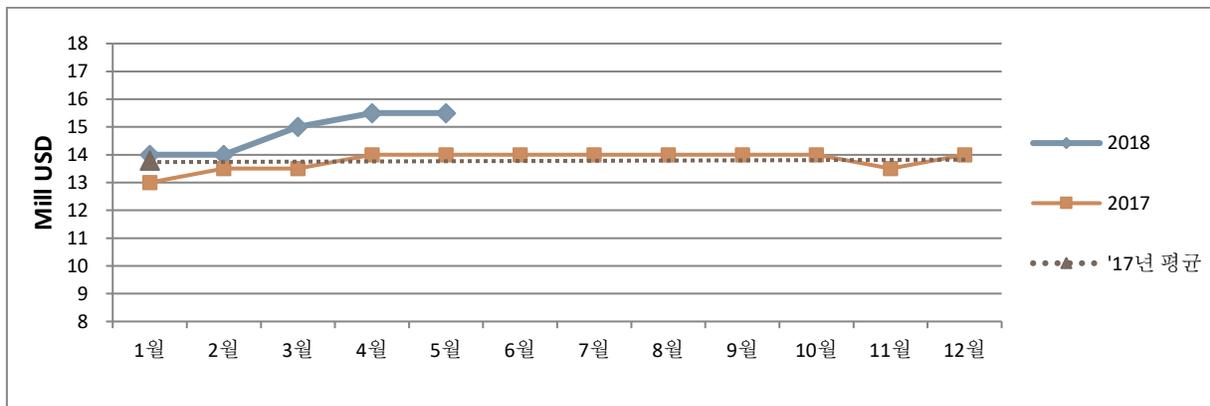
□ Panamax



□ Supramax



□ Handy



III. BULK CARRIER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NEW MIGHTY	179,850	2011	PHILIPPINES(KOR)	B&W		27.5	Korean buyer
BC	GOLDEN SPRING	83,730	2008	JAPAN	B&W		16.6	Greek buyer (Unisea)
BC	SOLANA	74,756	2001	KOREA	B&W		8.6	Chinese buyer
BC	DUBAI ENERGY	55,389	2004	JAPAN	B&W	C 4x30t	11	undisclosed buyer
BC	MAGNUM FORCE	53,630	2008	CHINA	B&W	C 4x30t	9.9	Chinese buyer
BC	SEA CONFIDENCE	52,300	2005	JAPAN	B&W	C 4x30t	10	Chinese buyer
BC	NAVIOS ACHILLES	52,055	2001	JAPAN	SULZ	C 5x30t	8.4	Chinese buyer
BC	IYO SEA	37,537	2015	JAPAN	B&W	C 4x30t	20.5	Hong Kong Buyer (Pacific Basin)
BC	LOWLANDS SAGUENAY	37,152	2013	CHINA	B&W	C 4x30t	14	Singapore buyer (Berge Bulk)
BC	LOWLANDS BOREAS	37,144	2013	CHINA	B&W	C 4x30t	14	
BC	OCEAN LUCK	35,360	1998	JAPAN	MITSU	C 4x30t	5.2	Middle Eastern buyers
BC	PERSEVERANCE (log)	30,060	2013	CHINA	B&W	C 4x30t	10	Hong Kong buyer (Taylor Maritime)
BC	GLORIOUS SENTOSA	28,346	2010	JAPAN	B&W	C 4x30t	10	Hong Kong buyer (Taylor Maritime)
BC	CLIPPER LASCO	28,200	2004	JAPAN	B&W	C 4x30.5t	6.75	Vietnamese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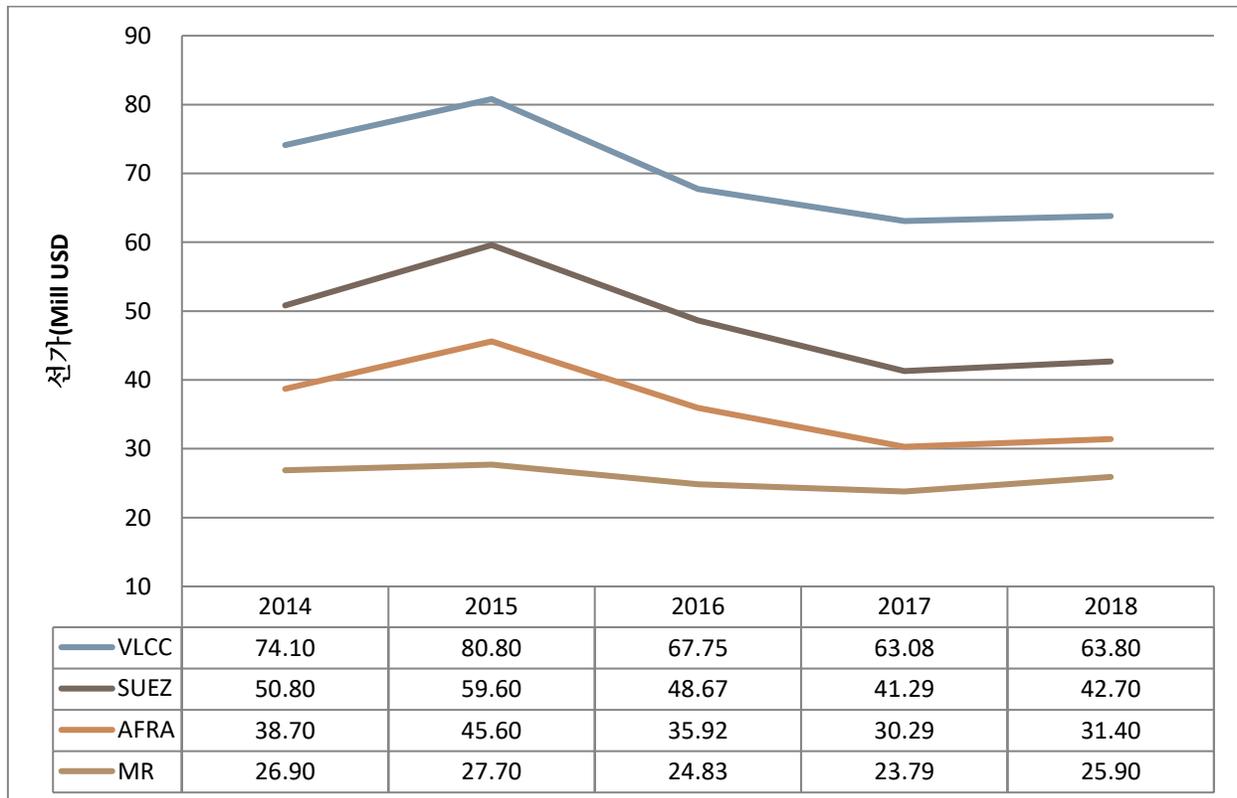
IV.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VLCC 310K	74.10 32%	80.80 9%	67.75 -16%	63.08 -7%	63.80 1.1%
Suezmax 160K	50.80 27%	59.60 17%	48.67 -18%	41.29 -15%	42.70 3.4%
Aframax 105K	38.70 33%	45.60 18%	35.92 -21%	30.29 -16%	31.40 3.7%
MR 47K	26.90 2%	27.70 3%	24.83 -10%	23.79 -4.2%	25.90 8.9%
Chemical Tanker IMO II 13K	13.00 9%	12.60 -3%	13.92 10%	12.42 -10.8%	12.40 -0.1%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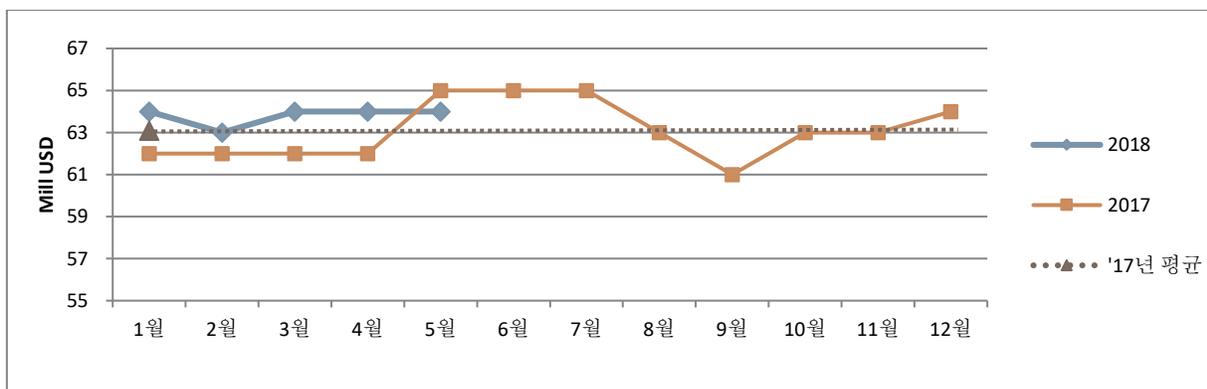




IV.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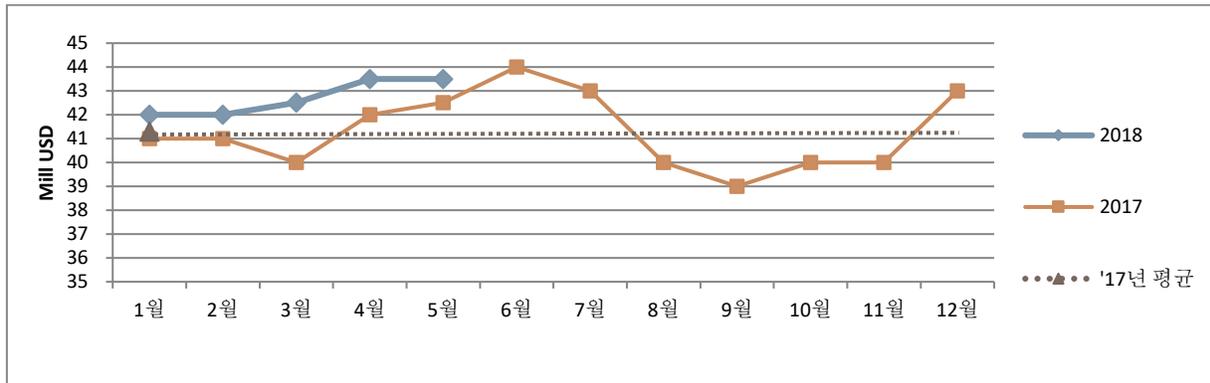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18	VLCC 310K	선가	64.00	63.00	64.00	64.00	64.00		63.80
		전월대비	0.0%	-1.6%	1.6%	0.0%	0.0%		-
		전년대비	3.2%	1.6%	3.2%	3.2%	-1.5%		1.1%
	SUEZ 160K	선가	42.00	42.00	42.50	43.50	43.50		42.70
		전월대비	-2.3%	0.0%	1.2%	2.4%	0.0%		-
		전년대비	2.4%	2.4%	6.3%	3.6%	2.4%		3.4%
	AFRA 105K	선가	32.00	30.00	31.00	32.00	32.00		31.40
		전월대비	0.0%	-6.3%	3.3%	3.2%	0.0%		-
		전년대비	6.7%	0.0%	8.8%	6.7%	3.2%		3.7%
	MR 47K	선가	25.00	25.00	26.00	26.50	26.75		25.90
		전월대비	0.0%	0.0%	4.0%	1.9%	0.0%		-
		전년대비	11.1%	11.1%	15.6%	10.4%	7.0%		8.9%
CHEM IMO2 13K	선가	13.00	12.50	12.50	12.25	11.75		12.40	
	전월대비	0.0%	-3.8%	0.0%	-2.0%	-4.1%		-	
	전년대비	6.1%	4.2%	-2.0%	-2.0%	-7.8%		-0.1%	
2017	VLCC	62.00	62.00	62.00	62.00	65.00	65.00	63.08	
	SUEZ	41.00	41.00	40.00	42.00	42.50	44.00	41.29	
	AFRA	30.00	30.00	28.50	30.00	31.00	31.00	30.29	
	MR	22.50	22.50	22.50	24.00	25.00	25.00	23.79	
	CHEM	12.25	12.00	12.75	12.50	12.75	12.50	12.42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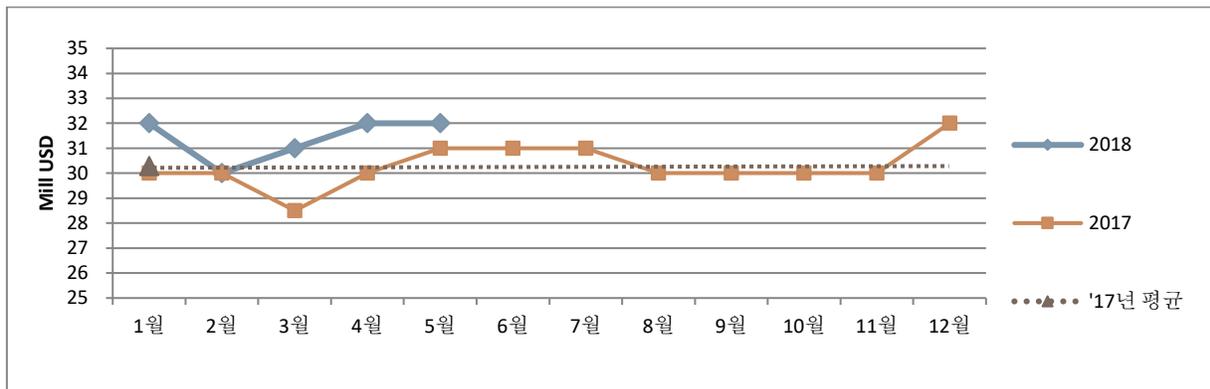


IV.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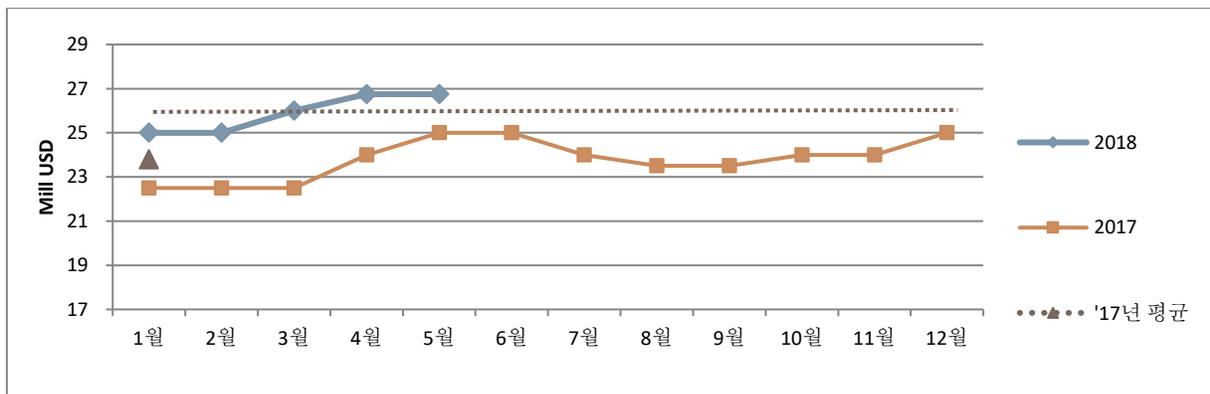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47K



IV.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UNITED BANNER	73,584	2007	CHINA	B&W		10.25	Greek buyer
TANKER	ARCTIC BRIDGE	50,921	2005	KOREA	B&W	3	12	European buyer
TANKER	NORD INTELLIGENCE	47,975	2010	JAPAN	B&W		16.5	Greek buyer (Spring Marine)
TANKER	OCEAN EMERALD	47,037	2000	JAPAN	B&W		-	Undisclosed buyer
TANKER	OCEAN CORAL	45,858	2000	JAPAN	MITS U		-	
TANKER	CPO LARISA ATHENA	37,000	2004	KOREA	B&W	3	7.8	Undisclosed buyer
TANKER	CPO LARISA ARTEMIS	37,000	2004	KOREA	B&W	3	7.8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HAMBURG	72982	2009	JAPAN	B&W	6350	TEU	21	Greek buyer
CONT	VICTORIA SCHULTE	33868	2005	GERMAN Y	B&W	2478	TEU	11.8	Norway /Germany JV
CONT	NORDWOGE	34700	2005	KOREA	B&W	2570	TEU	11	
CONT	WELLE	34700	2005	KOREA	B&W	2570	TEU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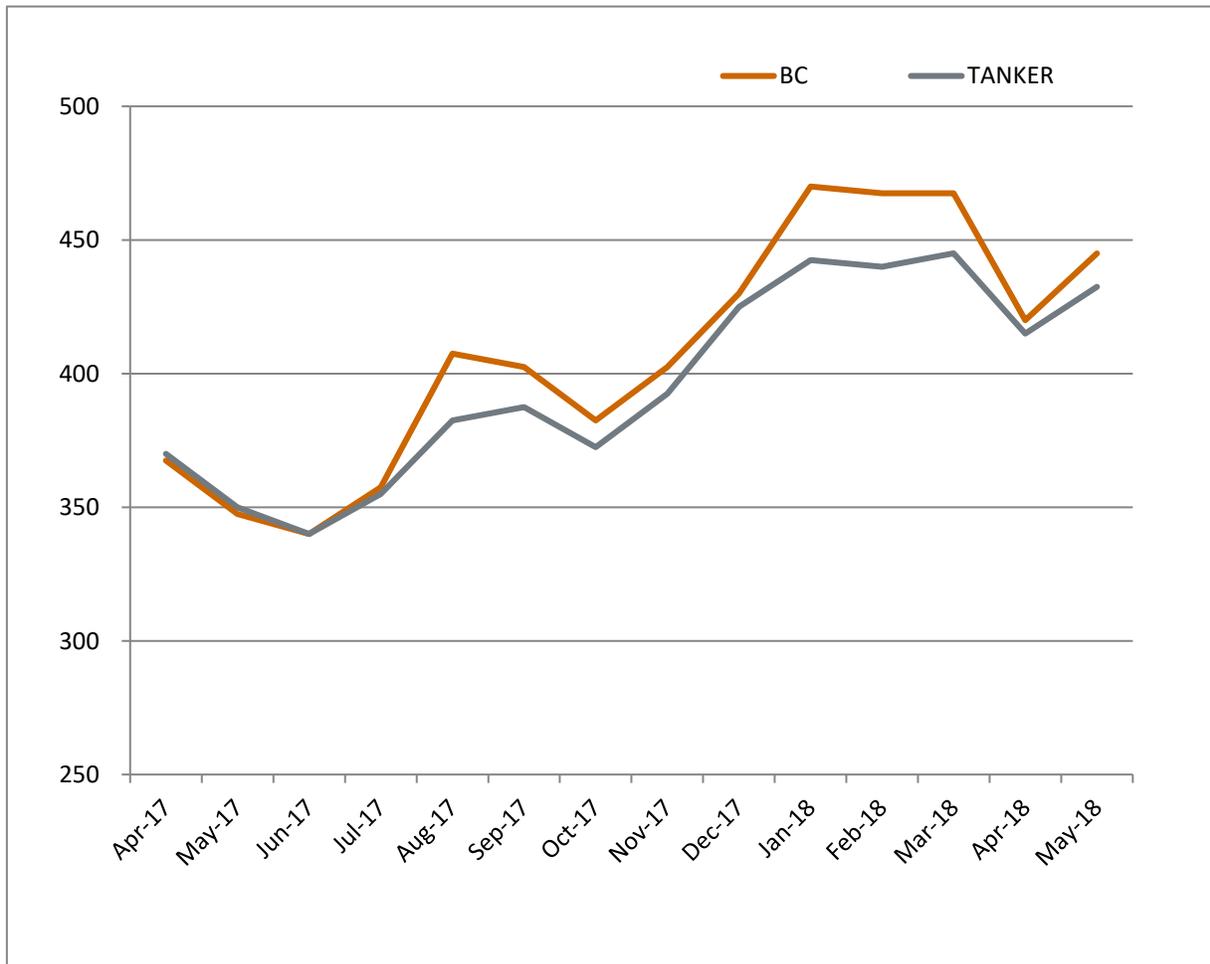


V.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6 평균		2017 평균		2018 평균		2017 년 5 월	2018 년 5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65.63	-22.1%	365.21	37.5%	435.00	19.1%	350.00	432.50	4.2%	23.6%
BC	267.71	-20.5%	370.83	38.5%	454.00	22.4%	347.50	445.00	6.0%	28.1%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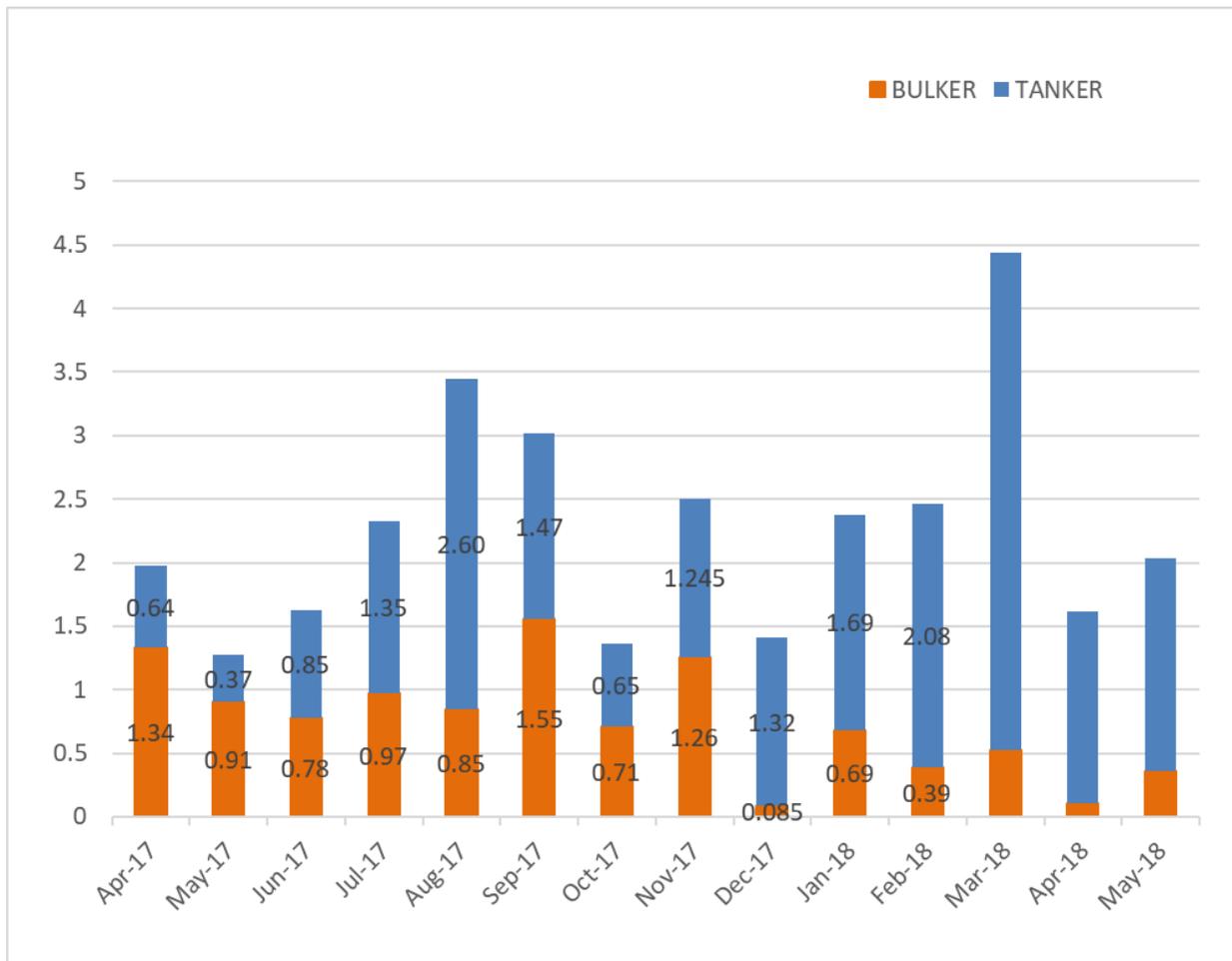


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7 년		2018 년 누적			2017 년 5 월		2018 년 5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11.47	113	10.86	94.7%	95	84.1%	0.37	6	1.67	358.6%	15	150.0%
BC	11.74	292	2.06	17.5%	50	17.1%	0.91	23	0.36	-60.7%	12	-47.8%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V . DEMOLITION

V -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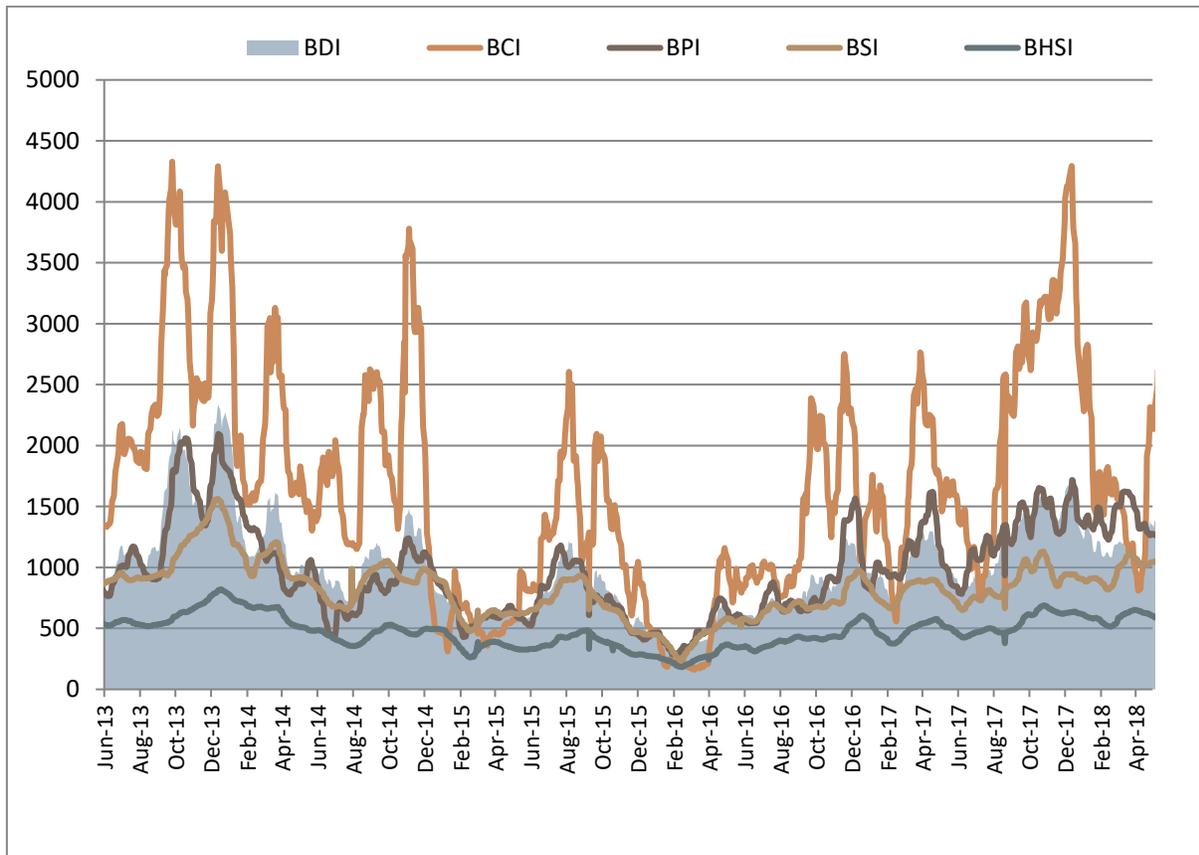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BC	KIRAN	175,048	24246	1994	POLAN D	SULZ	440	PAKISTAN
BC	SMT BONTRUP	42,980	15109	1979	JAPAN	MAN	434	INDIA, Green Recycling
CONT	ITEA	48,304	15861	1998	KOREA	SULZ	468	AS IS Hong Kong
TANK ER	AL SALHEIA	310,453	42501	1998	KOREA	SULZ	406.5	AS IS Kuwait
TANK ER	AMBA BHAKTI	106,597	15988	1997	JAPAN	SULZ	438	PAKISTAN
TANK ER	SEGA PIONEER	104,024	17710	1999	KOREA	B&W	441	Full sub-continent delivery
LPG	ARZEW GAS	9,539	5891	1976	GERMA NY	B&W	467.5	INDIA



VI.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18-05-25	2018-05-18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1077	1273	▼-196.00	2337	290
BCI	1395	2053	▼-658.00	4329	161
BPI	1187	1241	▼-54.00	2096	282
BSI	1071	1069	▲2.00	1562	243
BHSI	587	590	▼-3.00	821	183





VI.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454.00	▼-5.00	436.00	▼-2.00	440.50	▼-7.50
IFO180	485.00	▼-1.00	468.50	▼-1.50	496.50	▼-18.00
MGO	698.00	▲4.50	664.00	▲4.50	691.50	▼-6.50

❖ 기준일 : 5 월 25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18-05-25	2018-05-18	CHANGE
미국달러	1079.70	1079.30	▲0.40
일본엔(100)	988.04	974.27	▲13.77
유로	1265.25	1273.20	▼-7.95
중국위안	169.11	169.90	▼-0.79

❖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I. USEFUL INFORMATION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	기타
세미나	IMO 배출가스 규제대응 기술세미나	5.30(수) 14:00 ~ 18:0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층 대회의실 (부산 영도구 소재)	국제해사기구의 지속적인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대한 회원사의 대책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최신기술을 소개
박람회	2018 그리스 아테네 포시도니아 선박기자재 박람회	6.04(월) ~ 6.08(금)	그리스 아테네, Metropolitan Expo.	- 선주국 그리스에서 개최되어 유럽지역의 Big Buyer 를 통한 신규 발주 물량의 협상 및 선주 Broker 의 활동이 활발하여 기자재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전시회 - 홈페이지: www.posidonia- events.com
공모전	해운·항만분야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6.22(금) 까지	온라인공모 (해수부)	해운·항만 분야의 신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한국해양보증보험 홈페이지(www.kmgic.com)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이메일 (idea@kmgic.com)로 제출 - 6월 26일 1차심사 - 7월 11일 발표대회 - 최우수상 1명(상금 200만원), 우수상 1명(상금 100만원), 장려상 2명(상금 50만원) 등
교육	해운중개업종사자 실무교육	6.25(월) ~ 6.29(금)	여의도 한국선주협회 대회의실 (해운중개업협회)	- 5일간, 09:30-12:30 (3시간) 6/25(월) 용선개요 6/26(화) 해운시황 6/27(수) 선박매매 중개 /권순일 상무 6/28(목) 물류영어 이메일 6/29(금) 시장의 현안과 과제



VIII. CONTACT INFORMATION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Leo J.M. Jung (정재문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9

Mob.010-3273-4008

snp@stlkorea.com

leo@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 (Personal)

Jiwon Song (송지원 사원)

Tel. 070-7771-6417

Mob.010-4042-9803

snp@stlkorea.com

jiwon@stlkorea.com (Personal)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TLX: K35476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